

공동체 소식



연중 제2주일

아버지, 파스카 어린양이시며 인류의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를 부르시어 새 계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성령의 힘으로 세례의 은총을 굳건히 하시어, 저희가 온 삶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하소서.



1월 기도지향

- 캔사스 한인 공동체와 쉬는 교우를 위해

구역 조정 및 구역장 임명

- 1구역(I-435 기준 N.) : 안혜진 임마꼴라파
- 2구역(143rd 기준 N.) : 박희영 카타리나
- 3구역(143rd 기준 S.) : 김경희 스킨라스티카
- ☞ 2월부터 총구역장님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합동위령 미사

- 새해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앞서 세상을 떠나신 조상님과 부모, 형제, 은인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합니다.
- 일시 : 1/26(일) 11시 중심미사

초 축복

- “주님 봉헌 축일(2/2)”을 맞아 1년 동안 제대와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봉헌 받습니다. 각각 4불입니다.

평협 회의

- 일시 : 1/19(일) 오후 1시
- 장소 : 회관
- ☞ 인수인계, 역할 분담, 분과원 모집 등을 상의하겠습니다.

구역회의

- 일시 : 1/26(일) 오후 1시
- 장소 : 회관

견진교리 일정

- 일시 : 3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 장소 : 회관
- 교재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 다과 준비는 전례부에서 봉사하겠습니다.

기타

- 이번 주, 화/목요일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 매 달, 기도 지향 가정을 전례부에서 접수받습니다.
- 2014년 공동체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32	219	160/168	6

주일미사 복사

	항 복사	시중 복사
금주	고영방(스테파노)	안광민(야 고 보)
	고평원(프란치스코)	안지영(카타리나)
차주	정병훈(보니파시오)	정수한(베 드 로)
	김준영(요 셉)	정예찬(미 카 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아 네 스)	정수한(베 드 로) 김주연(세실리아)
차주	박혜정(카타리나)	차호섭(요 셉)
		차서은(세라피나)

애찬 봉사자

금주	박혜정, 지은경, 김재은, 윤유아, 김경돌
차주	다 함께

헌금 봉사자

금주	백문주(엘리사벳), 박희영(카타리나)
차주	문석찬(요 셉), 최은미(아 네 스)

우리들의 정성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12	90명	363불	X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연중 제2주일인 오늘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그분을 증언하는 장면을 전해 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이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살피며 정성껏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성화해설

세상 안에 머무심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요한 1,32)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 보내시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심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이사 49,3.5-6 <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



◎ 주님보소서 당신 뜻을 따르려 이몸이 대령 했 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만, 주님께서 이 몸을 굽어보셨네.
주님께서서는 내 입으로 새로운 노래를, 우리 하느님께 송가를 부르게 하시었네. ◎

○ 희생과 제물은 아니 즐기시고, 오히려 저의 귀를 열어 주시며,
번제나 속죄의 희생일량 드리라 아니하셨사오니, 그때에 저는 아뢰었나이다. ◎

○ 저를 두루마리에 적혀 있기를, 저의 주님 제 기쁨은 당신 뜻을 따름이오니
제 맘속에 당신 법이 새겨져 있나이다. ◎

○ 크나큰 모임에서 하느님의 정의를 알렸사오니,
제 입술 다물지 않았음을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

제 2 독 서 : 1코린 1,1-3 <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

복 음 : 요한 1,29-34 <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

쉐 마

“하느님의 어린양”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 1,29) ‘하느님의 어린양’은 레위기 16장이나 탈출기 12장 그리고 이사야 예언서 53장을 더불어 읽고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와 구원을 위하여 어린양을 제물로 바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잠시 그 당시의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제사장은 경건한 복장과 성스럽고 치밀한 의식으로 한 마리의 어린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 참여한 백성들은 감사와 안도 그리고 평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죄는 자신들이 짓고, 속죄와 희생은 아무 상관 없는 한 마리의 어린양을 제대에 바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속죄양으로 대속(代贖)된 어린양의 들릴 듯 말 듯한 외마디 비명소리도 귓전에 남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를 대신할 이런 속죄양을 만들어 내는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과 재산을 위해, 허욕과 자존심을 위해, 무엇인가 나 자신을 위해 끊임 없이 속죄양을 만들어 냅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어떤 때는 시간을, 수많은 핑계를, 나 말고 그 어떤 것이라도 대속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평안해질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나를 위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그 속죄양의 모습으로, 스스로 세례자 요한 앞으로 다가오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앞으로 그 속죄양의 길을 걸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 모

르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다가오십니다. 내 앞으로도 오십니다. 또 다시 내가 당신을 속죄양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처럼, 또는 다시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아도 괜찮은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런 것이 구원자의 길임을 가르쳐 주러 오십니다.

이제 생각합니다. ‘나는 속죄양이 되어 줄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해받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비천해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지요?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가신 길은 분명 그런 길인데 나는 왜 안 되는지요? 어느 날 나의 아픔과 비명으로 인해 다른 이가 살 수 있다면, 그래서 더 많은 생명이 살아갈 수 있다면, 이번 차례는 내가 속죄양이 된다 한들 그렇게 억울할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유롭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발걸음을 헤아려 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있을지 모를 나의 무너짐조차 그분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전체가 그 길을 따르기 어렵다면 이한 주간, 어쩌면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내가 속죄양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대교구 강귀석 신부 -

마중물

“양보다 질일까?”

한 도에 수업 첫날, 강사가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교실을 반으로 나눠 왼편에 앉은 학생은 ‘작품의 수’로, 오른편에 앉은 학생은 ‘작품의 질’로 점수를 매기겠다고 했다. 방법은 간단했다. 첫 번째 그룹의 경우 수업 마지막 날 저울을 가지고 와서 완성한 작품의 총 무게가 20Kg을 넘으면 A, 18Kg이 넘으면 B...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긴다. 두 번째 그룹의 경우 단 하나의 작품만 완성하면 그것으로 점수를 매긴다.

채점 당일,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가장 완성도가 높고 훌륭한 작품은 모두 양으로 점수를 매긴 첫 번째 그룹에서 나온 것이다. 이들이 실수에서 교훈을 얻으며 점점 나은 작품을 만드는 동안, 두 번째 그룹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 계획만 세웠다. 그 결과 그들은 평범한 작품 이상의 결실을 얻지 못했다.

이는 양과 질이 함께 올 때가 많다는 사실을 상기해

준다. 양을 위해 질을, 질을 위해 양을 포기하지 마라. 두 가지는 똑같이 중요하며,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 바로 노력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양을 채우기 위해 그만큼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노력이 질의 향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노력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주님을 아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절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친구를 사귄 때, ‘오늘부터 사귀자’라고 말을 하자마자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가져야 가까운 사이, 둘도 없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과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수많은 노력을 통해 주님과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남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양과 질은 함께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해’교육자료

제 8절 성령을 믿나이다.



72. 하느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여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갈라 5,22-23)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접목시켜 주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더욱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736항 참조).

73. 성령과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잘려져 나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 없이는 교회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궁전인 교회 안에서 성취됩니다. 이 공동 사명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성령 안에서 성부와 이루는 그리스도의 친교에 참여하게 합니다.

-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사람들을 도와 그리스도께 이끌어 주십니다.
-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도록 정신을 열어 주십니다.
-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하느님과 화해시켜,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게 하시며, 그들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의 신비를 그들 안에, 특히 성체 안에 탁월하게 현존하게 하십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737항 참조).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